

2018년 라돈 침대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공익을 위해 노력 중인
SBS 기자 강청완 동문을
만나보았다.



학생·학교, “성적 평가 불리해” … 학점표준화 제도 개선 나서야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대학주보



동아리 대면 박람회 3년 만에 돌아온 활기

중앙동아리 박람회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청운관 앞에서 열렸다. 작년과 재작년 비대면으로 치뤄진 박람회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총 22개의 중앙동아리가 참여했다.

김현준 기자 stayc1112@knu.ac.kr

가을학기 대동제 26~30일

최예령 기자 herry2020@knu.ac.kr

2022학년도 가을 대동제가 9월 말 양 캠퍼스(양캠)에서 개최된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축제 ‘희야: 경희의 밤, 경희로운 밤(BOMB)’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캠퍼스(서울캠) 축제 ‘MASTERPEACE: Ready, Set, Play’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다.

양 캠퍼스(양캠) 총학생회(총학)에 따르면, 이번 대동제는 캠퍼스별로 축제 기간을 분할해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오는 26일 국제캠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30일에 서울캠에서 폐막식을 치를 예정이다. 양캠 총학은 “학생들이 서울캠과 국제캠 축제를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나누게 됐다”며 “이를 통해 양캠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캠은 멀티미디어교육관 앞 대운동장을 무대로 공연을 진행한다. 1일 차는 개막식 및 e스포츠 대회, 2일 차는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포스트모던음악학과의 찬조 공연, 3일 차는 장기자랑 대회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무대에 근접한 일정 공간은 ‘재학생 존’으로 운영된다. 재학생 존에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배부하는 팔찌를 착용한 재학생이 입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 참여 부스 ▲미디어파사드 ▲온오프라인 전시회 등이 진행된다. 학생 참여 부스는 멀티미디어교육관 앞 주차구역 일대, 푸드트럭은 멀티미디어교육관 대운동장 트랙 일대에 설치된다. 국제캠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밤 부스는 공과대학, 외국어대학, 생명과학대학에서만 운영될 예정이다”면서도 “단과대학 운영 부스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4면으로 이어짐

횡령 이후 6개월…여전히 불투명한 자치회비

홍지민 기자 jimin4249@knu.ac.kr

【서울】 지난 학기 연이어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 이후에도 자치회
비 사용내역 공개가 부진한 것으
로 밝혀졌다.

지난 3월, 호텔관광대학(호관대)
전 부학생회장과 피아노과 전 학
생회장은 회비 일부를 개인 통장
으로 송금한 후 사적 목적으로 이
를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관
련기사 : 연이은 학생회 횡령 논
란…자치기구 신뢰 하락 우려/대
학주보 제1683호(2022.03.28))

사건 즉시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감사 활동이 진행됐다. 호관대 횡
령 사건의 감사 결과 호관대는 자
치회비 증빙에 있어 증빙 자료 관
리에 명확한 절차가 없다고 밝혀
졌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구글 계
정을 통해 자치회비 증빙 자료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스캔해 저장 매체에 즉시
▲문화대학 ▲미술대학 ▲이과대

저장하는 명확한 관리 체제를 구
축하도록 했다.

피아노과 학생회장은 과 학생회
비 결산안을 제출한 이후 횡령을
시도했다. 다음 해에 회비를 이월
할 경우 이월 전까지 공백을 현 학
생회장이 증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에 감사위원
회는 지난 학생회의 학생회비 증
빙 내역을 음악대학 밴드에 게시
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권고사항 이행 여부와 관련
해 우리신문은 호관대와 음대 학
생회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
했으나 두 학생회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호
관대 학생회는 자치회비 증빙자료
를 공유할 구글 드라이브 계정도
알리지 않은 상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사
건 이후 총학 홈페이지에 단과대학
의 월별 자치회비 결산안을 공개하
도록 했지만, ▲호관대 ▲무용학부
▲문화대학 ▲미술대학 ▲이과대

학 ▲자율전공학부 ▲정경대학 ▲
치과대학 등은 현재까지 자치회비
결산안을 게시하지 않은 상태다.
부진한 결산안 공개에 대해 총학은
“자치회비를 운용하는 단위가 월별
결산안을 게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총학생회 세칙에 없어 매월
공개를 강제할 수 없었다”면서도
“9월을 기점으로 학우참여형 회계
감사시스템을 통해 모든 단위는 총
학 홈페이지에 결산안을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5일 호관대 전 부
학생회장 횡령에 대한 상벌위원회
가 개최됐다. 그러나 징계 여부와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학생지원센터 이진섭 차장
은 “9월 5일에 ‘호텔관광대학 횡령
의 건’ 상벌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개
인정보 문제 등으로 공개할 수 없
다”고 밝혔다.

의명을 요청한 호관대 재학생 A
씨는 “호관대 소속 학생으로서 호

관대 자치회비 운용에 대해 믿음
이 없는 상황이다”며 “자치회비 사
용내역 공개가 필수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횡령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학생회에서
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감사
권고 사안들에 대해 한 학기가 지
난 지금까지 학생회에 속하지 않
은 구성원들은 이행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호관대 학생회
는 이를 시일 내에 진행 상황이 공
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다”고 전했다.

사령

명 〈정기자〉
김나형(사회학 2021)
서세종(국제학 2017)
이수현(지리학 2020)
이자수(미디어학 2020)
정다연(국어국문학 2021)
최예령(한국어학 2020)